

2022년 4월 30일-5월 1일 주말예배

<인생의 질문 말씀으로 답하다> 2. 가정보다 우선인 신앙, 괜찮을까요?

2. 가정보다 우선인 신앙, 괜찮을까요?

사무엘하 18장 31-33절

31.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꺾으셨나이다 하니
32.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물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33.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이 내 아들이 하였더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마도 이곳에 있는 부모님들 중에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며, 모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현재를 살고 있는 부모에게 자녀들의 학업, 학교, 직장이 가장 큰 관심일 수밖에 없지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은 2007년에 [어질현답] 시리즈로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당시 교인들에게 어떤 주제가 궁금한지 물었고, 그 질문에 대하여 답하는 형식이었죠. 오늘 말씀 역시 지난주에 이어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솔직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왜 어리석은 질문인지, 그리고 왜 솔직한 해답인지는 말씀을 나누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풀어 가는데 가장 힘든 것은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소위 ‘젠더 이슈’가 많이 부각되는 세상에서 남녀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 힘들고, 또한 결혼의 형태가 많이 변하고, 가정의 모습 역시 일률적인 패턴을 가지지 않은 세상에서 ‘가정 문제’ 혹은 ‘자녀 문제’에 대한 솔직한 답을 하는 것 역시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오늘 다양해진 사회적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보다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에 충실한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적 원리’를 다양한 사회 속에 어떻게 적용하느냐를 솔직하게 여러분의 몫으로 돌려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말씀을 열어갑니다.

생각하기!

언젠가 심방을 하다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집사님이 교회에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답니다. 성경공부를 하는 팀에서 보낸 것인데,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십시오!”

막 수요일예배를 가려고 하는데 이 문자를 받고 보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동안 교회 일을 하느라 집안이 엉망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 순간 우선순위는 집안을 정리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수요일예배를 빠지고 집안일을 했다고요.
여러분은 이 분의 결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문제를 풀어나가는 순서를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가정이 왜 중요한지를, 그다음 신앙이 왜 중요한지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질문에 대한 답부터 이야기해도 좋을 듯합니다. 목사 팀 최지원 권사의 글입니다.

설교문을 읽으면서 워라밸이라는 말이 생각났다. 교회인가 가정인가 선택하는 우선순위의 문제라기보다는, 일과 삶에서 균형을 찾으려고 했던 것처럼, 균형을 찾아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 고민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이것은 균형을 찾기 보다는 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두 가지 중 무엇이 중요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회복되고 신앙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적인 가정이 뒤따라온다고 하신 말씀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할 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거룩한 일이 된다는 뜻이 아닐까.

요즘 '융합'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통합을 넘어 '신앙적 융합'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융합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 '다른 두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하여 진다'는 뜻이 있었다. 두 요소가 합쳐져서 통일된 감각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이다. 가정과 신앙이 하나로 합쳐져서, 어떤 영역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또한 우리가 우선순위를 안다는 것과 그것을 행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현실적으로!'라는 표현을 쓰는데, 알지만 현실적으로 행하기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참 많이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다 옳은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신앙과 교육'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죠.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사랑이고 우선순위일까요? 어쨌든 가정과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겠지요.

<건강한 가정 회복 방안(고명진 목사,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월례발표회, 2020.05.12.)>을 조금 참조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전통적인 개념에서의 가족 형태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가정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 2018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전국 미혼 남녀(22~44세) 2,464명을 대상으로 한 통계 결과에 의하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2015년에는 남성의 경우 65%였는데, 2017년에는 50%까지 감소했다. 여성의 경우에는 2015년 40%에서

2018년에는 29%까지 감소했다.~ 2018년에 있었던 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 조사에 의하면(50~69세, 2022명) 일명 신 중년이라 불리는 50~60대에서 황혼이혼에 대해 41%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5명 중 2명이 황혼 이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결혼을 유지하면서 별거 생활을 하는 이른바 ‘졸혼’에 대한 입장도 42%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가족의 형태가 아무리 변해도 가정이 가지는 책임과 중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족학의 권위자인 버지니아 사티어(Virgina Satir)박사가 그의 책 『사람 만들기』에서 언급한 글이 흥미롭습니다.

“자동차는 자동차 공장에서 만들고, TV는 TV 공장에서 만든다. 자동차 공장에서 불량 자동차를 만들면 불량 자동차가 시가지를 달리게 되고, TV공장에서 불량 TV를 만들면 가정으로 불량 TV가 배달된다. 그렇다면 불량 청소년, 불량 남편, 불량 아내는 어디서 만들어 지는가? 바로 가정이다. 사람은 가정에서 만들어지기에 가정이 건강하면 그 가정의 가족들이 건강케 되고, 가정이 건전치 못하면 그 가정에 속한 가족들의 정신세계가 건강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 당장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일이다.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사람을 만들어 사회에 배출하게 되면 이 사회와 거래는 건강하게 될 것이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풀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과 교회 사이에서 어디에 더 강조를 두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미 언급했지만 이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조화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는 것이죠. 특히 가족 구성원들이 동일한 신앙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지 않은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적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왜 가정이 중요한가?

가정이 깨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정은 교회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만들어주신 조직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18.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을 때는 가장 아름답고 보기 좋은 모습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깨어진 가정, 그로 인한 아버지의 슬픔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을 제외한 신하들은 압살롬을 다윗의 아들로 보기 보다는 적으로만 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식이 원수다!”라는 말을 하지만 자식은 아버지에게 끝까지 자식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본문에 나오는 구스 사람은 다윗에게 수치를 안겨준 아들이요, 반역자였던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다윗이 무척 기뻐하리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압살롬의 생사를 묻는 물음에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슬프게 우는 장면이야말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가장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깨어진 가정으로 인하여 결국은 통곡하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가정인가요? 이 깨어진 가정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성경의 수없이 많은 곳에 가정을 지키기 위한 자녀의 도리, 부모의 역할, 부부 간의 지켜야 할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4절**이지요.

1.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4. 또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행복한 가정은 서로 대립하거나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보완적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신앙의 이름으로 가정의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오래 전에 들었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을 신처럼 모시기

여자 셋이서 남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얘기했다.

첫 번째 여자: “남편은 우리 집의 대장이에요. 단 한 톨이라도 남편이 허락해야 쓴답니다.”

두 번째 여자: “나는 남편을 왕처럼 모셔요. 집안의 모든 돈은 남편을 위해서 쓴답니다.”

세 번째 여자: “나는 남편을 신처럼 모셔요.”

첫 번째 두 번째 여자: “신처럼 모신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여자: “수입의 90%는 나를 위해 쓰고, 나머지 10%는 남편을 위해 쓴답니다.”

과연 이러한 태도가 남편을 위하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와 유사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지요. 예수님의 지적을 보세요.

마가복음 7장 11-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12.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 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예수님의 질책이 무엇인가요? 모세의 유전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부모에게 해야 할 도리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가정에 소홀히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종교적 이기주의를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판단을 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과 ‘독사의 자식’이라고 질책하고 계십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 가족의 행복이 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가정의 중요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신앙으로 인하여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정을 회복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신앙이 중요한가요?

이미 가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앙 때문에 가정이 깨어질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모순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깨어진 가정의 원인이 깨어진 신앙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가정이 왜 깨어졌나요? 그 내면을 보면, 다윗의 신앙이 깨어졌을 때, 그의 가정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수없이 많은 삶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어려운 인생의 시기를 걸을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주옥같은 시편 23편은 그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고백된 찬양입니다.

4. 내가 사마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6.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실 우리들이 고통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밖에 없기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가정이 파괴된 것은 그가 이미 많은 승리를 거두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때, 그림자처럼 그에게 다가온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는 그 유명한 다윗의 범죄가 나오지요.

이때는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 하나님의 법궤도 찾아오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입니다. 다윗은 모든 전투에 부하들과 함께 참여하곤 했는데, 암몬과의 전쟁에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혼자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사무엘하 11장 2-5절에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2.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 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3.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히요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4.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5.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부분은 제가 남성 성경공부를 할 때 다루는 부분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 다윗이 무슨 이유인지 저녁에 일어나 거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서 건너편에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었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궁에서 담을 넘어 건너편에서 목욕하고 있는 민가의 여인의 얼굴, 그것도 황혼녘에 아름다운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이미 그의 마음속에 죄가 엮여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세요.

8.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버지 한 사람의 불신앙이 이제 다윗의 가정에 커다란 화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나오는 다윗 왕가의 비극입니다.

다윗의 아들 중 하나인 암논이 그의 이복누이인 다말을 연모하여 강제로 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맘이 변하여 누이를 버린 것입니다. 그 일이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배다른 형제 암논을 잔치에 초대하여 술 취하게 한 후 살해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두려워 도망갑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 다윗은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고 궁중으로 불러들이지만 예전 같지 않은 아버지의 태도로 인하여 반역을 꾀하게 되고, 결국은 아버지를 내몰고 왕궁을 차지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하나님께 범죄하여 간통죄를 지은 다윗이, 죄를 지은 암논도, 형을 죽인 압살롬도 신앙으로 훈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발생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 즉 신앙의 문제가 이 가정에 있었다는 것이죠.

상상 할 수 없는 패륜, 그리고 다윗의 비극이, 아버지 다윗의 불신앙으로 인한 범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런 면에서 신앙적이지 못한 가정에서 우선순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영성”이 죽으면 우리의 “도덕성”도 죽는다고 말입니다.

도덕이 무너진 가정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분명히 신앙이 우선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들에게 신앙을 가진 좋은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겪는 많은 가정의 문제들이 결국 깨어진 도덕성 때문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깨어진 영성에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적 가정 만들기. . .

상당히 힘든 과제이기는 하지만, 가정과 신앙이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 가정”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면 우리의 고민을 덜고 쉽게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할 수 있는데, 이 가정과 신앙의 문제에서는 이러한 이분법적인 선택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중요하기에 신앙이 중요하고, 신앙을 가지는 이유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염려”와 “고민”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염려”는 이방인들의 것이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즉, 가정에 대하여 염려하는 것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맡기고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나 신앙 안에서 가정을 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10.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제부터 신앙적 가정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고민을 시작합니다.

1. 믿음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 아버지를 ‘신앙의 호주’로 생각해도 좋음

과연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버지는 어떤 존재였나요?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에서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한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상처는 인생의 보물지도』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에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심하게 말썽을 부렸습니다. 아무리 야단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빠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딸이 다시 좋은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 때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렸습니다. “딸 때문에 안타깝지? 네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내 마음도 그랬단다.”

그 음성은 질책의 음성이 아니라 “내가 너에 대해 많이 참았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라는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때 아빠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 후에는 신기하게도 딸의 회복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며칠 후, 그날도 딸이 늦었습니다. 갑자기 불길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친구 셋과 함께 딸이 탄 택시가 전신주와 충돌했다는 전화였습니다.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다 피투성이였는데 운전석 옆에 앉았던 딸은 약간의 찰과상만 입은 채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곳에 앉았던 딸은 무사했고, 그 일로 딸이 2주 동안 입원 했을 때 그들은 깊은 가족 사랑을 회복했습니다.

남이 나를 아프게 할 때가 내가 남을 아프게 한 것을 생각할 때입니다. 자녀가 나를 아프게 할 때 필요한 생각은 “자녀가 나를 아프게 했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아프게 했다”는

생각입니다. 자녀 문제로 안타까울 때는 내 모습으로 안타까워했던 아버지를 그릴 때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자녀도 내게 돌아옵니다. 아버지께 대한 ‘헤아림’은 인생의 ‘헤매임’을 찾아들게 할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이든 어머니이든 가정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어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느냐에 따라 그 가정의 성격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가정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앙의 주도권도 행사할 수 있다면, “가정이냐? 교회냐?”의 갈등도 쉽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 가고 싶은 남자』라는 책에 나오는 통계입니다.

“남성 사역 모임에서 자주 인용되는 통계가 있다. 엄마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 가족들의 17%가 엄마를 따라간다. 하지만 아빠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즉각 93%가 따라 간다고 한다. 나는 이러한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 남성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의 가족 전체가 주님을 따르게 된다.”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했던 일을 기억하시나요? 간수장은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했고, 즉각 사도들을 집에 모셨고, 가족 전체가 세례를 받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저는 절대로 ‘남성 우월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남자들의 영적인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몇 주 전 『교회 가고 싶은 남자』라는 책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실제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가정의 가장인 남성들이 신앙생활을 하기에 무척 어려운 구조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여자분들, 특히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때로는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같은 말씀 때문이지요.

1.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께 말쑥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물론 아내로서의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신앙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 교회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사역이 이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목회의 대부분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과 여성 중심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힘이 듭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행사가 여성 중심으로 되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소위 ‘맥도날드식 접근 방법’이라는 방식이 교회 안에도 유행합니다. 맥도날드가 ‘해피밀’을 판매하여 전체 매출의 40%를 올리는 방식처럼, 아이들을 겨냥한 선교 방법으로 부모들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들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 남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남자들은 어디를 가나 가장 무능력한 존재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정을 ‘신앙 공동체’로 만드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장애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될 수 있습니다. 남성을 남자답게 만드는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을 공격적이고 모험을 감수하게 만드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조사팀에 의하면 이 테스토스테론이 아침에는 아주 높고 저녁에는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자들이 주일 아침 예배시간을 견딘다는 것, 특히 긴 설교를 듣는 것 자체가 무척 힘든 일입니다. 활동성을 억제하다가 조는 것이 어찌면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처음 봉사를 할 때 주차 안내를 맡게 되는 것이 움직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요.

늘 거룩함과 경건함을 요구하는 예배 공동체에서 남자들은 낙오자가 됩니다.

찬양하는 시간에 자신의 자존감을 상하게 되는 남자들은 또한 낙오자가 됩니다.

이제 교회와 먼저 신앙을 가진 아내들이 기도하며 인내하고 끊임없이 해야 하는 일이 어떻게 하면 신앙의 가장을 세울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가정과 신앙의 대립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2. 어머니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고 진한 감동을 주는 이야기들, 자녀를 변화시킨 뒷자리에는 늘 어머니의 눈물이 있습니다. 목상 팀의 한 남자 분은 자신도 늘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한다고 하니, 이 부분 역시 젠더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말로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성격적 견해로 풀어 가고, 듣는 여러분은 이러한 원리를 신앙적 삶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던 한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위대한 아들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 방탕하던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 기도하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이 그 유명한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낳았지요.

신앙이 있는 어머니의 눈물보다 강력한 무기가 어디 있을까요? 남편 혹은 아내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아내 혹은 남편의 눈물보다 무서운 무기가 어디 있을까요?

자식의 문제에 대하여 발끈하고 나가서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것보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훨씬 능력이 있으며, 자식의 빛나감과 무능함을 질책하는 어머니보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무릎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조선일보 [어쩌다 주말] 세션에 코로나 이후 아빠들의 변화에 대해 취재한 것을 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던 아빠들이 자녀들 교육에 열을 내기 시작했고, 헬리콥터 맘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바지바람을 일으키는 헬리콥터 대디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녹색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들이 등하교를 돕는 모습도 쉽게 보이고, 아이들 등하교를 돕는 아빠들도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제는 전통적인 가정에서 아버지가 돈을 벌고, 엄마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아버지의 영향을 더 받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 세대에는 ‘엄마의 눈물’이 아니라, ‘아빠의 눈물’을 보고 변화된 간증들이 더 많아 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신앙적 모습을 자녀들이 보며 자라나고 있는가 입니다.

벌써 뉴스 뒤편으로 사라진 이야기가 되었나요?

2006년 초 미식축구의 영웅이 된 한국계 혼혈아 하인즈 워드의 열풍이 어머니의 눈물로 시작되었다는 것요.

생각해 보세요. 하인즈 워드가 성공할 수 있는 요인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엄마, 그리고 그 환경에서 양육 되었던 아들, 학교에서는 한국인도 미국인도 아닌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었던 어린 아이의 마음의 상처. . .

하인즈 워드에게 피부색이 다르고 배운 것이 없으며 경제력이 없는 엄마는 늘 감추고 싶은 존재, 부담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아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빛나가는 아들에 대한 질책보다 기도와 눈물을 택했습니다.

어느 날, 워드가 어머니 차로 등교하면서 평소처럼 친구들이 모르게 차 아래로 깊숙이 몸을 숨겼다가 학교 앞에서 급히 차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때 잠깐 고개를 돌렸다가 어머니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 날 그는 ‘바보로’ 보던 어머니를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접시닢이, 호텔 청소부, 가게 점원으로 하루에 3가지 일을 하면서도 늘 제 시간에 식사를 챙겨준 어머니, 자신을 위해 애쓰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눈물이 그에게 희망과 웃음을 주었습니다. 그는 항상 웃었고, 경기 중 누군가 강한 태클을 걸어와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상대가 강한 태클을 걸어와도 화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힘들어도 웃으며 살기로 어머니와 약속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신앙과 가정 사이에서 고민하며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자문하여 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자식과 가정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있는가?”

신명기 6장 5-10절 말씀을 보세요.

5.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10.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행복한 가정은 자녀의 기분을 맞춰주는 교육 방식에 있지 않습니다. 자녀의 기분을 맞춰주기 시작하면 즉흥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기분에 맞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바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안 돼!’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자녀를 부모 이외에 누구도 용납하지 않으며,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과 더불어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자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유치원도 바꾸고, 학원도 바꾸고, 교회도 쉽게 바꾸는 사람들을 봅니다. 잘 바꾸는 삶이 기분은 살려줄지 모르지만 인격을 저하시킵니다.

진정한 사랑과 교육은 기분을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잡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중심’ 혹은 ‘기준’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가정이냐? 신앙이냐?”라는 이분법적인 구조로 생각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과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적 가정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으로 가기 위한 기준이 필요한데,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몸 된 교회라는 조직을 위해 필요한 일이 있고, 성도들의 헌신도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 다른 교회를 섬기던 권사님이 만나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전에는 교회 일을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을 했고, 가정은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만나교회에 와서 가정을 위한 일과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의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교회를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하지 말고,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하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의 명령이나, 누구를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결단과 헌신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명확한 기준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앞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비극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욕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자녀도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조건, 이유가 없습니다.

자식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녀는 절대로 잘못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활동을 하는 것도 자신들의 즐거움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고백인지 분명히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내에게 있어서 어떤 남편도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며, 남편에게 있어서 어떤 아내도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자녀도 아버지보다 혹은 어머니보다 앞 설 수 없습니다. 자식 앞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늘 존중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순서이고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 생활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가정이냐? 신앙이냐?”

이 질문의 답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여러분의 거룩한 근심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가장 분명한 사실은 깨어진 가정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며,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